# KTX익산역 복합개발 첫 단추

## 민간대상 기본구상 공모… 최적 개발방안 마련

익산시는 KTX익산역 복합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민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공모'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실현 가능한 기본구상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안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KTX익산역 복합개발사업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본구상 단계부터 역량있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탄탄한 사업구상을 수립할 방침이다.

채택된 제안은 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호남권 철도 네트워크의 거점역인 익산역은 서울 1시간, 전국 2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며 앞으로도 국가 철도정책 상 호남권 핵심 거점역으로 중심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중장기 철도운행 전략'에 따른 일반열차 운행체계 개편(2023년), 서해선(준고속열차) 전면개통(2024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신설(2027년)에 따라 익산역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익산역을 거점으로 하는 철도 운행 횟수가 대폭 증가하고 2030년에는 연간 이용인구가 약 1,500만명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변화하는 철도 여건을 반영해 익산역 철도 상부를 활용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등 역세권 개발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정원여행' 시티투어로

## 24일부터 정원관광 활성화 위해 시범운영… 1일 6회

익산시가 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익산정원 시티투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로써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비밀의 숲, 아가페정원'과 '이국적 자연경관, 왕궁포레스트'을 비롯해 미륵사지를 시티투어버스로 한 번에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시는 '익산정원 투어버스'를 이달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오전 11시부터 16시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1일 6회 운행한다.

미륵사지를 출발해 아가페정원, 왕궁포레스트, 승강장을 순환하며 익산 정원여행을 즐길 수 있다. 승차권 구매는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현금 및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시는 익산의 주요 관광명소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순환형 시티투어와 정원형 시티투어버스를 티켓 하나로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정원형 시티투어 여행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푸르른 정원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500만 관광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코레일-익산시 관광 연계상품, 금강부릉이 관광택시 등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익산의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티투어 문의는 전화(063-841-4788)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확인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 천호산 명품 등산로 개통… 트래킹 명소 기대

## 해발 501m · 등산로 편도 3km

익산시가 해발 501m의 천호산 등산로를 자연경관이 수려한 트래킹 명소로 조성한다.

익산시가 해발 501m의 천호산 등산로를 자연경관이 수려한 트래킹 명소로 조성한다.

시는 22일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도의원, 시의원 및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호산 등산로'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여산면 천호산 등산로는 편도 3km를 새로이 정비해 왕복 2시간30분 소요되며 등산 난이도는 미륵산과 유사하다.

시는 도내 트래킹 명소인 미륵산(430m) 및 모악산(793m)과 비교 시 천호산이 트래킹 관광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아 명품 등산로 조성으로 여산면 일대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등산로 조성은 천호산 구간별 숲과 전경 특색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 등산 코스 초입에는 편백나무 숲길(8,000㎡)이 있어 야자매트, 목재 계단, 안전난간을 설치해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여산의 자랑거리인 오래된 소나무인 고송(古松) 집단 서식지를 지나 산 중턱에 오르면 미륵산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간을 정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은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함라한옥체험관에서 함열농기뺏기 재현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 잊혀졌던 함열농기뺏기 재현

## 익산문화원, 24일 함라한옥체험관서 진행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은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함라한옥체험관에서 함열농기뺏기 재현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함열농기뺏기 재현 행사는 과거 전통행사를 보존 및 발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놀이 현대화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존 행사들과 달리 함열 지방의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과거와 달리 마을 주민들의 수가 적어 부족한 부분은 익산문화원과 함께 손발을 맞출 예정이다.

함열농기뺏기는 30년 전까지는 함열지방(현재 함라면) 5개 마을(수동, 교동, 안정, 행동, 천남)이 음력 정월 보름이면 각 마을의 큰 깃발을 들며 서로 농기뺏기를 하며, 마을의 권위와 명예를 드높이고 서로의 화합을 다짐하는 행사였다.

이재호 익산문화원장은 "호남가에서도 등장하듯이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함열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인심이 후하며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함열과 함라에 이번 함열농기뺏기 재현 행사를 통해 앞으로 더욱 전통을 보존 및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간여행축제 대동놀이 마당 참여팀 모집

군산시는 2022년 제10회 군산시간여행축제 대동놀이마당에 참여할 참여팀을 모집한다.

2022년 제10회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부터 부터 10일까지 4일간 구)시청사거리에서 내항 사거리 대학로를 주무대로 구)시청광장과 구)군산초교, 초원사진관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군산시간여행축제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경연 등이 펼쳐진다. 특히, 구)군산초등학교에서 대동놀이마당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개인전은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10시에서 18시까지, 단체전은 10월 8일 13시부터 18시까지 열려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의 장이 마련된다.

대동놀이마당은 근대5종(수영, 사격, 펜싱, 승마, 크로스컨트리종목)을 유쾌하게 각색한 이색 5종 경기와 줄다리기로 구성된다. 이색 5종 경기는 △수영-물안경과 수영모 쓰고 에어바운스 먼저 통과, △사격-코끼리코 돌고 장난감 총으로 과녁 맞추기, △펜싱-장난감 펜싱칼로 풍선 터트리기, △승마- 장난감 말타고 먼저 도착, △크로스컨트리-2인 3각 경기로 구성된다.

개인전은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전은 줄다리기 10명(혼성), 근대5종은 5명이 팀을 이뤄 사전접수 시 가능하다.

특히, 단체전은 우승 시 게임별로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이 상금으로 주어 진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정책 반올림 2기 발대식 개최

군산시는 MZ세대의 관점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나가는 시정혁신 정책연구모임 '정책 반올림 2기' 발대식을 22일 오후 3시 개최했다.

이번 정책 반올림 2기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조직혁신에 관심이 많은 임용 5년 차 이하의 8~9급 공무원 15명으로 성별, 부서, 직렬 등을 감안해 다양하게 구성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조직문화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정책 발굴 분야 선정 등 앞으로 논의할 안건들을 공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에 대해 서로 자유로운 토의 시간을 가졌다.

정책 반올림 2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기적인 토론 모임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조직 내 혁신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 군산,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밀조사용역 추진

군산시는 주거지 침수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산북동 일원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산북분구 하수관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밀조사 중이다.

이번 사업은 40년이상의 노후 하수관로 활용지역인 산북분구(산북동, 소룡동)의 관로파손, 이음부이탈 등으로 발생되는 불명수 유입 및 침출수(오수) 발생 요소에 대한 정밀 조사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장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산북분구 하수관거(오수) 정밀조사용역을 시작해 현재 산북동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밀조사 중이며, 오는 2023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신청한 상태로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지 침수예방과 하수처리 시설의 수질오염 방지 및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